네이버에서 연재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는 결국 광고 수익

사용자의 페이지 체류 시간을 늘릴 수록 네이버에 이득

댓글란이 있는 것도 베댓란이 있는 것도 이런 수익구조와 연관이 있음

독자수가 많은 웹툰일 수록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

댓글도 웹툰의 일부 > 독자들은 웹툰도 보지만 베댓을 읽으려고 페이지에 더 머물러 있는다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광고 수익이 높아진다

장르별로 독자수와 댓글수의 비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정 장르의 독자들이 더 시끄럽거나 조용할까?)

장르별로 평점에 따른 평점기여자수와 좋아요수의 비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은 하나의 웹툰에서 평점이 급락 혹은 반등했을 때 평점기여자수와 좋아요수의 비율은 평점이 꾸준히 유지되었을 때의 비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장르별로 평점 변화의 완급에 차이가 있을까?

헬퍼처럼 평점이 티나게 급락하거나 반등하는 웹툰이 타 장르에도 있을까?

있다면 댓글 트래픽에도 차이가 있을까?

>> 일반적으로 첫화에서 최신화로 갈 수록 좋아요수 / 평점기여자수 / 전체댓글수 / 베댓공감수 / 베댓비공감수는 줄어든다.

>> 평점은 평점기여자수와 관계 없이 0-10점 사이로 주어진다.

>> 좋아요수 / 평점기여자수 / 전체댓글수는 회차별 독자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특히 좋아요와 평점 기여는 계정 당 1회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그러하다.

> >보이지 않는 독자수를 평점기여자 혹은 좋아요수로 대체한다면 > 그 수치를 기준으로 댓글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있다.

> 예) 평점기여자 1만명일 때 댓글이 1천개일 때와 10만명일 때 1만개인 것은 같은 비율

> 비율로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

> 전체댓글수 나누기 평점기여자수(혹은 좋아요수?) == 댓글 수치

>> 이렇게 하면 독자가 많은 웹툰과 적은 웹툰의 댓글 수를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있다.

> 독자가 많았던 첫화와 최신화의 댓글 수도 같은 단위로 비교가 가능하다

\* 평점기여자수와 전체댓글수를 min-max나 mean normalization한 후 corr로 상관 관계를 따져보면 평점기여자수를 독자수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업

>> 댓글 수치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 평점 변화는 댓글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회차 진행 중 평점 수치 급락/급등 혹은 완락/완등에 따라 댓글 수치 변화는 어떠한가?